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기업 설비투자 주문, 예상치 초과… 경제 성장 이끌어
- Bloomberg: 미 연준, 은행 규제 기준 완화 추진

[미국 금융]
- Bloomberg: 고금리가 '뉴 노멀'로 자리 잡는 이유
- Bloomberg: 미 국채 변동성지수도 1년 만에 큰 폭 상승
- WSJ: 달러 약세 전망 바뀐다...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미국 생활]
- Bloomberg: 미니밴 미국서 인기 부활, 가성비 때문

[중동 전쟁]
- CNBC: 이란, 호르무즈 재개방 및 핵 협상 재개 제안

[글로벌 경제]
- WSJ: OECD, 세계 경제 전망 상향…에너지 등은 위험 요인

[인공 지능]
- Bloomberg: 골드만삭스 "하이퍼스케일러 AI 설비투자 내년 50%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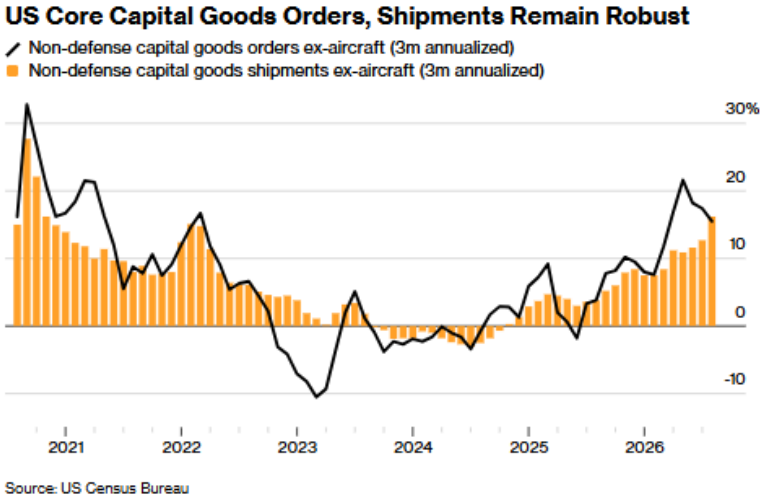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코스코 4분기 실적 급증
- Bloomberg: H&M 중고 플랫폼의 적자 이유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re Capital Goods Orders Increase by More Than Forecast
미 기업 설비투자 주문, 예상치 초과… 경제 성장 이끌어

- 지난 8월 미국의 기업 설비투자 주문이 예상치를 웃돌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설비투자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항공기와 군수물자를 제외한 기업 설비투자를 가르키는 핵심 자본재 주문액은 지난 7월 0.6%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 1.6% 늘었다. 8월 증가폭은 전망치를 모두 웃돌았다.
- 반면 상업용 항공기와 군수물자를 포함한 3년 이상 내구재의 전체 수주는 큰 변동이 없었다.



기사

Bloomberg: Fed Plans to Raise Bank Asset Oversight Thresholds, Report Says
미 연준, 은행 규제 기준 완화 추진

- 연준이 대형 은행을 엄격하게 감시하기 시작하는 자산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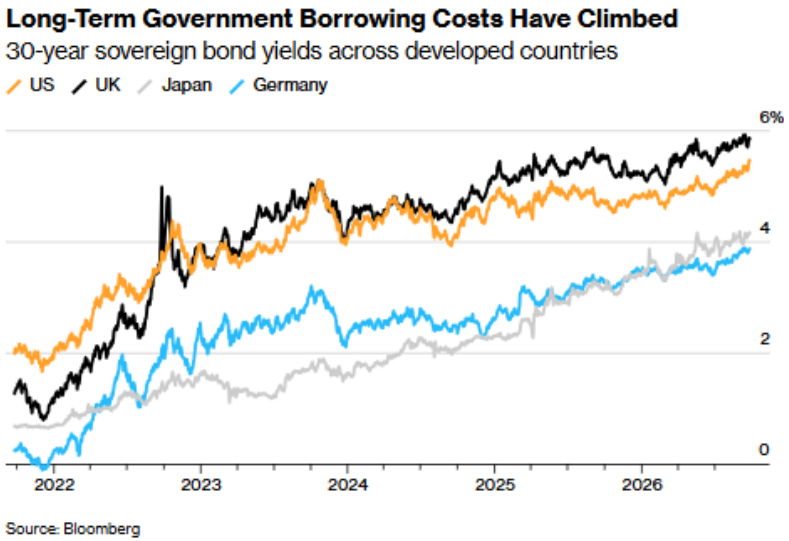
- 자산 조사 기준을 올리면 규제 대상이 되는 최소 자산 규모를 높이게 되므로 감시받는 은행 수가 줄어들어 규제가 완화된다. 예를 들어 '자산 1,000억 달러 이상'부터 받던 까다로운 재무 검사를 '1,500억 달러 이상'으로 올리면, 자산 1,200억 달러 규모의 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준은 최저 기준을 1,500억 달러로, 최고 기준을 1조 달러 수준으로 올려 중대형 은행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Why High Bond Yields Look Like the New Normal
고금리가 '뉴 노멀'로 자리 잡는 이유

-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저금리 시대가 종식되고 고금리가 뉴 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했고, 전 세계 국채 평균 금리도 4%에 도달했다.
-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외면하고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이유들이 있다. 1) 각국 정부의 재정 적자 폭증으로 채권 공급이 과잉된 데다, 2) 무역 전쟁 및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이 인플레를 정착시킨다. 3) 여기다 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면서 국채가 투자자 유치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 이 같은 구조적 악재가 겹치면서 높은 국채 금리가 장기화되는 흐름이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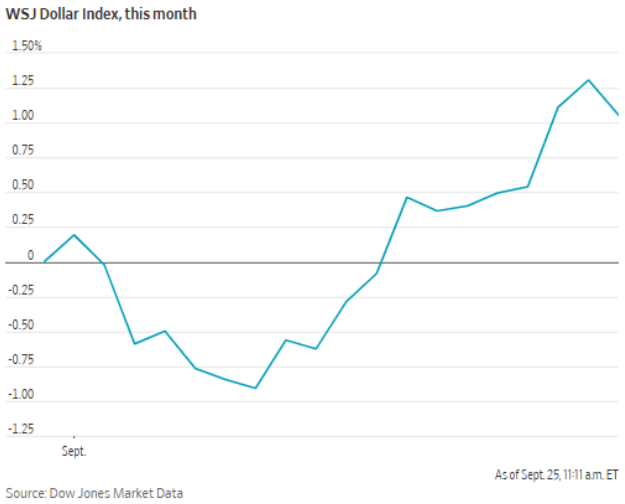
Bloomberg: Treasury Volatility Set for Biggest Jump in Year as Bonds Churn
미 국채 변동성지수도 1년 만에 큰 폭 상승

- 미국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도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채권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ICE BofA MOVE 지수는 이번 주 약 29.69% 급등했다. 이는 작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주식, 외환, 유가 등 타 자산군 변동성 지표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반면, 국채 시장만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다. 이는 시장이 연준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

기사

WSJ: ‘We Were Wrong:’ Why Analysts Are Ripping Up Their Weak Dollar Forecasts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달러 약세 전망 바뀐다

- 미 달러화가 5일 연속 상승하며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분석가들이 달러 약세 전망을 바꾼 이유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돈을 걸면서 달러 자산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 여기에 프랑스 대선 등 유럽 주요국의 선거 불안 요인이 유로화 약세를 부추기며 달러 강세를 뒷받침했다.
- 모건스탠리는 "달러 약세 전망은 틀렸다"라며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매파적 연준과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를 근거로 내년까지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기사

[미국 생활]

Bloomberg: Americans Are Going Wild for Minivans
미니밴 미국서 인기 부활, 가성비 때문

- 매력 없는 차종으로 꼽히던 미니밴이 실용성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새로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미니밴 판매량은 28만 1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 미니밴은 SUV 수준의 공간과 편의성을 갖추고도 가격은 5분의 3 수준이다. 평균 가격이 SUV보다 약 3만 1,400달러 저렴하다.
- 업계도 미니밴의 장기 성장을 전망한다. 스텔란티스는 2030년까지 시장 확대를 예상했고, 도요타는 스포티한 디자인 검토와 함께 올해 생산량을 20% 늘렸다.

기사

[중동 전쟁]

CNBC: Iran offers to reopen Strait of Hormuz within 7 days and restart nuclear talks
이란, 호르무즈 재개방 및 핵 협상 재개 제안

- 이란이 미국이 군사 행동과 자금 동결 해제 등의 조건을 수용 할 경우 7일 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재개를 제안했다.
- 이번 제안은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과 호르무즈 통항 선박이 9척으로 급감하는 등 중동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
-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과 맞물려 있으며, 중국은 7개월간 이어진 미·이란 갈등 중재에 나서고 있다.

기사

[글로벌 경제]

WSJ: Global Economy Stronger Than Expected, But Threats Mount, OECD Says
OECD, 세계 경제 전망 상향…에너지 등은 위험 요인

-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 생산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 성장세 주도는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열풍이다. AI 투자 호조가 미국을 비롯해 전자 제품을 제조하는 주요국 경제를 뒷받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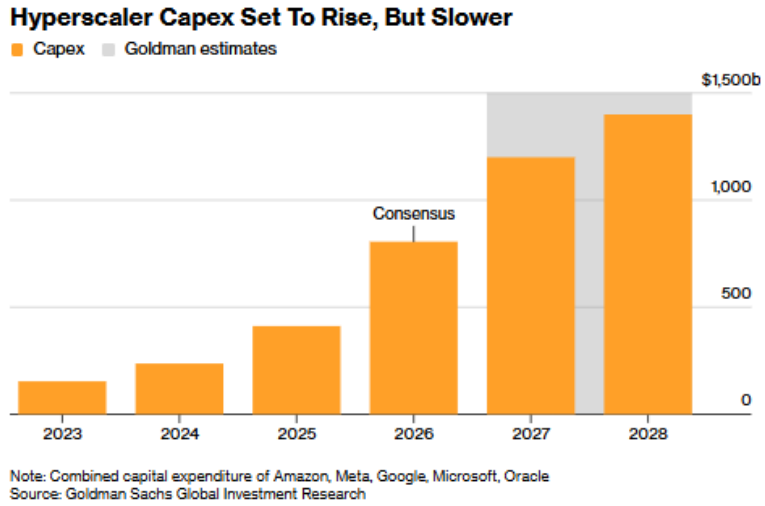
- 다만 OECD는 장기화되는 중동 분쟁과 높은 에너지 가격 등 악재가 여전히 세계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

[인공 지능]

Bloomberg: Goldman Sees Hyperscaler AI Capex Rising 50% to $1.2 Trillion
골드만삭스 "하이퍼스케일러 AI 설비투자 내년 50% 급증"

- 미국 5대 빅테크 회사의 내년 AI 인프라 지출이 50% 이상 급격히 늘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향후 수년간 연간 3천억 달러 규모의 AI 매출을 올려야 한다.
- 빅테크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100%에 육박했던 수준에서 내년 54%, 2028년 12%로 점차 증가율을 줄여,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전체 투자 규모는 1조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Costco Reports Higher Fourth-Quarter Profit, Revenue on Resilient Consumer Spending
코스코 4분기 실적 급증했다

- 코스트코가 소비자 지출 호조에 힘입어 4분기 순이익 30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26억 1,000만 달러) 대비 실적이 급증했다.
- 분기 매출도 9백57억 2천만 달러로 증가하며 월가 예상치인 9백49억 7천만 달러를 웃돌았다.
- 코스트코는 이번 분기 환급받은 관세 환급금 1억 8천4백만 달러의 일부를 생필품 등 주요 품목의 가격 인하에 재투자했다.

기사

Bloomberg: H&M Discovers It's Tough to Make Money Selling Used Dresses for $5
H&M 중고 플랫폼의 적자 이유

- H&M이 지분 82%를 보유한 중고 의류 플랫폼 Sellpy는 한 해 2천만 개 이상을 처리할 만큼 급성장했으나 12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 5달러짜리 중고 의류를 팔아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핵심 원인은 고비용 구조다. 중고 의류는 수거, 검수, 상태 확인, 포장까지 수작업 의존도가 높다.
- 여기다 개인 판매자가 옷을 보내기만 하면 수거부터 판매까지 회사가 다 대신해 주다 보니, 물류비와 창고 보관비 부담이 가중된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1,501.50	+151.6	+0.30%
US 500	7,717.60	+13.4	+0.17%
Dow Jones	51,498.39	+148.41	+0.29%
S&P 500	7,717.84	+13.61	+0.18%
Nasdaq	26,993.73	+54.36	+0.20%
S&P 500 VIX	15.40	-0.27	-1.72%
Dollar Index	100.765	-0.253	-0.25%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7/32	5.526	0.046
10-Year Note	4.625	-1/32	5.217	0.012
7-Year Note	5	-6/32	5.129	0.039
5-Year Note	5	1/32	5.045	-0.014
3-Year Note	4.375	1/32	4.981	-0.032
2-Year Note	4.75	1/32	4.899	-0.036
1-Year Bill	0	1/32	4.499	0.026
6-Month Bill	0	0/32	4.375	-0.002
3-Month Bill	0	0/32	4.193	0.014
1-Month Bill	0	1/32	3.946	0.047

미국 USD	유럽 EUR	일본 JPY	중국 CNY	유로/달러	달러인덱스
1,358.40	1,548.03	863.02	202.00	1.1378	101.00
+2.90 (0.21%)	-3.75 (0.24%)	+2.11 (0.25%)	-0.37 (0.18%)	0.0000 (0.00%)	-0.29 (0.28%)
9. 26. 00:10 ● 실시간	9. 26. 00:10 ● 실시간	9. 26. 00:10 ● 실시간	9. 26. 00:10 ● 실시간	9. 24.	9. 25. 11:04 ● 10분 지연

환전고시환율 | 국제시장환율

미국 USD

1
1 달러

대한민국 KRW

1,358.40
1,358.40 원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